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6호 【루계 제25309호】 주체105(2016)년 6월 14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쑨론 싸이냐싹단장이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관람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서장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드려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장군님과 아이들》, 기악과 노래 김일성상, 김정일상계관작품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학생소년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과 스뿌트니크방송,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국제방송망도우와 같은 소식들을 보도하였다.

세네갈신문 《러 보쁠래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새로 일떠서고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서고있는 봉악산비누공장건설장과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 소식들과 함께 새로 건설한 정양체육기자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에서는 경축집회와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전시회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좌담회가 6일과 7일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혈통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백승만을 떨치고있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메히꼬인민사회당,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메히꼬조선친선협회,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등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더욱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칭송하였다.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대외사업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다지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그이를 떠나 승리만을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회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조선력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특기할 사변이다.

대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2일과 3일 마쟈르로동당,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에서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들에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해서와 그이께 축전과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고 우리 나라 대표부를 속하방문한데 대하여 참가자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들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이 백승만을 떨쳐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신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여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조선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고계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서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조선의 국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새로운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전진하자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살림집골조공사 련이어 완성, 성과 계속 확대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주체조선의 건설속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로 아침과 저녁,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변모되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날에날마다 더욱 거세찬 비약의 폭풍이 일고있다.

70일전투의 승전보성을 200일전투의 장엄한 돌격포성으로 이어가며 만리마진군을 다그쳐온 조선인민군 주명철소속부대에서 11일 7층살림집골조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12일에는 통산건설사단에서 10층살림집골조공사를 빛나게 마감지었다. 하여 려명거리건설장적으로 13일 현재까지 2 60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가 형성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 5월말에 이어 이달에 들어와 8일과 9일 4동의 살림집골조공사가 끝난 때로부터 며칠만에 또다시 올려지진 골조공사완공의 우렁찬 함성은 다발적, 련발적으로 대비약, 대혁신의 포성을 울려가며 진군 또 진군해가는 려명거리 건설자들의 혁명적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대성56—109호동 살림집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세계앞에 더욱 힘있게 과시할 일념으로 총돌격, 총대진하고있는 려명거리 건설자들은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전례없는 공사실적으로 이어가고있다.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건설지휘부에서는 건설자들의 심장에 매일, 매 시각 격동의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투현장에 뛰여들어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기술자, 로동자들을 전력증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발전기와 변전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새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여러 발전기의 수리기일을 줄이도록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3중3대혁명붉은기 1발전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장 최정선동무는 전투현장을 타고앉아 설비판리, 기술판리를 짠지게 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하여 직장은 매일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수력구조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를 발휘하여 언제대면콩크리트타입과 시추주입전투를 힘있게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전기직장, 기계직장,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전기와 변전설비의 수리정비와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틀이대며 기술자,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궐기해나선 태천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발전소들에서 근무성원들이 순회감시를 책임적으로 하고 불량개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대책을 세우면서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장마철에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있다.

전력생산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총정의 70일전투기간 골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매일 많은 전력을 증산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전력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수위가 높아진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발전기부하분배를 잘 조직하고 발전기와 변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전력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전력공업성과의 련계밑에 통합생산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다그치면서 고수위, 고효률운전을 보장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장윤

일안에 결속할수 있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립체적으로 하고있다.

초고층살림집인 모란55—1—가, 나호동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도 조립식휘틀방법을 비롯한 앞선 기술공법들을 받아들여 17시간동안에 살림집골조를 한층씩 완성하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면서 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미 두개 대상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낸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빠른 시일안에 부대가 맡은 나머지 6개 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전부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며 내부미장공사도 동시에 추진하여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벋치고 일어나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며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이 계속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축산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성과 도입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에 힘차게 떨쳐나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축산의 과학화실현에 기여하는 연구성과들을 적극 도입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실장 함성철동무를 비롯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목장에서 집짐승의 질량을 측정하고 증체률을 분석하여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해결결과를 종합평가하는데서 의의있는 집짐승자동식별동적계량 및 사양관리정보화체계를 연구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관사, 기마수로서의 책임을 다할 각오로 애국충정의 강행군을 굴함없이 다그쳐 세계적수준의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이 자강력으로 연구제작한 집짐승자동식별동적계량설비는 말그대로 집짐승들이 련달아 움직이는 상태에서 무게를 짧은 시간에 재는것과 동시에 개체별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여있다. 집짐승들에게 달아놓은 식별표에는 개체번호와 목장주소, 품종, 난날을 비롯한 여러가지 근원정보가 기록되여있는데 방목지에서 돌아온 집짐승들이 계량대를 지나가면 이 설비와 련결된 콤퓨터에는 번호에 따라 개체별무게가 현시 및 입력되게 된다.

목장에서는 해당 집짐승의 무게와 근원정보를 놓고 품종과 나이, 새끼밴 상태 등 여러가지 특성에 따르는 증체률에 대해 평가할수 있다. 만일 집짐승의 증체률이 낮으면 그 원인이 품종과 먹이, 사양관리, 수의방역가운데서 어느 고리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데 있는가를 분석판단하여 해당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게 되여있다.

돌격대원들인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실장 박성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떨칠 각오밑에 목장들에서 집짐승우리안의 환경과 집짐승보호관리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게 하는 집중감시조종체계를 연구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핵심설비인 자동조절기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필요한 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성공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 조종체계는 수감장치와 자동조절기 그리고 촬영기로 이루어져있다.

수감장치로 집짐승우리안의 온도, 습도, 탄산가스와 암모니아농도를 수감하여 자동조절기에 전송해주면 이 설비가 자동적으로 배풍기를 돌리면서 집짐승에게 유리한 환경을 기술적요구대로 조성할수 있도록 되여있다.

촬영기로 집짐승우리안에 불필요한 인원출입과 집짐승의 움직임에 대해 영상집촬하고 이상현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시키게 된다. 목장관리성원들은 조종실에서 환경감시자료를 받는 콤퓨터와 련결된 TV화면을 통해 여러 호동의 집짐승우리내부상태를 감시하다가 경보발생과 동시에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여있다. 이 환경감시조종체계는 특히 소가 뜻밖에 넘어지는 경우 제때에 발견하고 일으켜세워 폐사를 막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집짐승을 보호하는데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연구집단은 태양빛전지판에 의한 2중전원공급체계를 세워 집짐승우리안의 환경을 실시간감시조종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성과들은 여러 목장들에 적극 도입되고있다. 그 리용정형은 콤퓨터망을 통해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종합생산지령실에 전송되여 세포지구 축산경리위원회에서 축산을 과학화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성철

김매기에 력량을 집중

강원도안의 농촌들에서

강원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논밭김매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식량문제를 풀자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벌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밑에 논밭김매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을 당면한 김매기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포전들을 일일이 밟아보고 농장들의 특성에 맞게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논밭김매기를 다그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원산시의 농업근로자들이 논밭김매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시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포전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논밭김매기를 적극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문천시와 세포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김매기일정계획이 드티지 않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논밭김매기에 력량을 총집중하고있다.

이곳 농업부문 일군들은 늘 작업반, 분조의 포전들에 내려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면서 농업근로자들이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금강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김매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김매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기를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요즘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수풍발전소에서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투현장에 뛰여들어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기술자, 로동자들을 전력증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발전기와 변전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새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여러 발전기의 수리기일을 줄이도록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3중3대혁명붉은기 1발전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장 최정선동무는 전투현장을 타고앉아 설비판리, 기술판리를 짠지게 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하여 직장은 매일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수력구조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를 발휘하여 언제대면콩크리트타입과 시추주입전투를 힘있게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전기직장, 기계직장,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전기와 변전설비의 수리정비와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틀이대며 기술자,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궐기해나선 태천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발전소들에서 근무성원들이 순회감시를 책임적으로 하고 불량개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대책을 세우면서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장마철에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있다.

전력생산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총정의 70일전투기간 골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매일 많은 전력을 증산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전력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수위가 높아진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발전기부하분배를 잘 조직하고 발전기와 변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전력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전력공업성과의 련계밑에 통합생산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다그치면서 고수위, 고효률운전을 보장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장윤

혁명전적지답사는 우리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 정 은

천만의 심장을 백두의 피줄기로 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6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따라서

흰눈덮인 한겨울에만 백두의 칼바람이 인다고 하랴.

초여름인 6월에도 백두산바람은 온 나라에 불고있다. 천만군민의 마음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 향하고있다.

지난 6월 9일, 혜산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60돐에 즈음하여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백두진구들에로 굽이치기 시작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출발구령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기를 대오앞에 높이 모시고 그뒤를 따라 답사행군대원들이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인 장현철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뜻깊은 력사의 날을 맞으며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도록 하여주신데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한 일군의 심정뿐이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참가증을 수여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답사행군대원들의 억센 기상이 압록강기슭에 흘러넘쳤다.

답사행군대원들의 가슴속에 물결치는 세찬 격랑이 그들과 걸음을 같이하는 우리의 가슴에도 일어번졌다.

10대의 어리신 우리 장군님께서 붉은기를 선두에 휘날리시며 헤쳐가신 항일의 전구들과 사연깊은 력사의 지점들이 우리의 눈앞에 어리어온다.

보천보, 보서리, 중흥동관, 포태, 리명수, 삼지연…

우리 장군님 개척하신 그 길을 따라 오늘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항일의 근복차림으로 대오를 짓고 행군해가고있다. 붉은넥타이를 목에 두른 소년단원들도 배낭을 메고 행군을 다그치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조선의 아들딸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온몸으로 뼈속깊이 체험하고 새겨두어야 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우에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울려퍼진다.

봄날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는 백두산, 꿈결에도 가고 그 언제나 가며 한생토록 가고 대를 이어 가는 천만군민의 마음의 고향, 혁명의 전구를 걸으면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와 신념, 필승의 넋을 받아안게 되고 이 땅우에 기적과 행운을 불러올 무적의 힘을 간직하게 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진군가마냥 천만군민의 심장을 꽉 틀어잡은 이 노래를 부르며 태양의 성산으로 향한 이 길에 나서면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결의가 더욱 불타오르고 그럴수록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사무치게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에게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는 학교로 되고있다.》

수십년전의 백두산기슭은 호수들이나 겨우 다니는 오솔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갈수 있는 항일의 전구, 누구나 넓은 대통로를 따라 오를수 있는 백두산이다.

우리는 격정에 넘쳐 력사의 갈피를 번진다.

주체45(1956)년은 참으로 준엄한 시기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북진》소동에 열을 올리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수령의 권위를 헐뜯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이에 편승하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저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준동하였다.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였다.

일찌기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발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우리 나라 속담에 《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한가정의 새벽문을 여는것은 그리 힘든것이 없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열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수호의 성스러운 새벽문을 열고 가시덤불길을 헤쳐갈 단호한 결심을 하시였다.

그때 종파분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답사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어린 학생들이 그 먼길을 어떻게 가겠는가, 방학기간에 명승고적이나 견학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폐쇄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다.

주체45(1956)년 6월 5일,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의 선두에 붉은기가 힘차게 휘날렸다. 앞장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단에 출발구령을 내리시면서 강조하시였다.

혁명전적지에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과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전적지의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아버지원수님을 위해 한목숨 다 바쳐싸운 혁명투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불굴의 넋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아버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그이의 음성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려고 뛰는 종파분자들과의 대결전의 선언인양 쩌렁쩌렁 울리였다.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행군에 나선것은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일제적멸의 총성이 높이 울렸던 항일의 전구들은 백두산의 아들을 모신 영광과 자랑으로 하여 폭풍처 설레이는듯싶었다.

답사길개척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전구들에 슬기여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절사수호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성스러운 자욱을 수놓으시였다.

오늘도 력사의 그날을 못 잊어 압록강은 용용히 굽이치는것이 아니랴.

수령님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기어이 조국을 찾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였다고,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시였기에 오늘 압록강은 우리 인민의 자랑과 기쁨을 싣고 흐르는 인민의 강으로 되였다고, 참으로 압록강은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어리어있는 잊지 못할 력사의 강이라고 압록강기슭에서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백두산기슭의 삼지연도 그날의 사연들을 고이 간직하고있다.

삼지연못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깃든 불멸의 사적을 감회깊이 되새기시며 거연히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숭엄히 바라보시였다.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라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혁명의 태불을 높이 지켜올리신 백두산은 온갖 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력사를 전하며 길이길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수백만리 혁명의 길이 저 백두산과 잇닿아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백두산을 무심히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오늘 삼지연못가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굳게 다진 맹세대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영원히 충정으로 받들어나갈것이라고 자신의 불같은 심정을 피력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은 그대로 조선의 영원하고 굳센 맹세가 되여 오늘도 백두산으로 가는 청춘들의 심장에 힘있게 흘러들고있다.

세계에는 그 력사를 자랑하는 도로도 많다. 그 크기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뽐내는 도로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에 뻗어있는 갑무경비도로처럼 세상사람들속에 유명해진 도로는 없을것이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법을 보여주는데서나 일제침략자들의 가련한 패망상을 보여주는데서도 갑무경비도로는 참으로 유명한 도로가 아닐수 없다.

그런 의의있는 도로에 또 한분의 천출명장의 발자욱이 력력히 찍혔으니 지금으로부터 60년전 붉은 기발을 앞에 휘날리며 갑무경비도로 한복판으로 씩씩하게 행군해가는 대오가 있었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첫 혁명전적지답사단이였다.

답사단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유격대행진곡》을 씩씩하게 부르며 보무당당히 행군해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행군하신 후 17년만에 혁명의 새 세대들이 그날의 투사들마냥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력사적인 행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적들의 삼엄한 경계진을 뚫고 대낮에 행군해가신 갑무경비도로로 답사대오를 이끄시며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령활한 지략,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시였다.

어찌 이뿐이랴.

리명수의 깊은 밤에도 리명수폭포의 장쾌한 소리를 들으시며 나는 지난날 보천보로 진군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도 조국의 물소리를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동무들도 잘 알고있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다.

우리는 정세가 긴장하고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답사를 끝마치신 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이번에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행군하면서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였다고,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느끼였다고 그리고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광강도혁명전적지를 답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시였다.

정녕 력사의 덤불에 가리워진 가림천기슭의 나무한그루, 우등불자리의 숯덩이 하나도 천만금의 혁명재보로 정히 빛내이며 조국땅 천만갈래의 길들을 한줄기에 꿰여 백두산마루로 이어놓을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어찌 단순히 개척이였다고만 하랴.

그것은 한 답사대오만이 아닌 온 나라, 온 민족, 조선혁명의 정신과 넋을 통채로 백두산과 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개척,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시원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그러나 백두의 행군길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천만군민이 이 길을 걸으며 자기의 심장을 백두에서 뿜어지는 주체혁명의 피줄기에 이어놓고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속에서 온 사회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싸워이긴 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천만군민이여!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굳게 믿고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오늘의 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본사기자 김철혁

백두산의 관문도시에 새기신 첫 자욱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관문도시인 혜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60년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기 위한 행군길에 오르시여 력사적인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곳이다.

이곳에는 혜산청년역, 압록강카표식비, 폐궁정표식비 등 그 나날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전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전국의 청소년학생들로 무어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과 함께 혜산시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자랑높은 청년강국건설의 력사가 60년전 그날의 백두의 행군길과 잇닿아있음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혜산청년역앞에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투쟁내용을 형상한 북부철길기념비가 있다. 그앞에 선 답사자들은 누구나 북부철길기념비로부터 영웅청년기념비에 이르기까지 광강땅에 새겨진 우리 청년들의 위훈의 자욱을 더듬어보며 그들의 심장속에 높뛰던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디서 시작된것인가를 소중히 새겨안았다.

우리와 만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인 양철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60년전에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이 있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청년강국의 대부대가 자라날수 있었으며 오늘의 영웅청년신화도 창조될수 있은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답사자들과 함께 잊을수 없는 력사의 사연을 전하는 혜산시의 어귀곳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높이 솟은 폐궁정마루였다.

한계단한계단 화강석층계를 밟으며 올라서니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도 항일전의 군복차림으로 사랑하는 전사, 제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것만 같았다.

60년전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의 산발들과 만주광야를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오래도록 압록강너머로 눈길을 주시였다고 한다.

광막한 전장들을 종횡무진하시던 백두산청년장군의 숭고한 뜻을 이어 위대한 백두산의 아들께서 거연한 모습을 압록강물결우에 실으시였으니 그날은 정녕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잊지 못할 하루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실 비장한 맹세를 남기신 압록강물결우에 수령위업계승의 위대한 맹세를 실으신 우리 장군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그이께서 답사대오를 이끄시고 찾으시였던 마동희동지의 비가 있던 곳으로 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혜산에 도착하신 다음날이였다고 한다. 도의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혜산시참관일정을 알려드리자 그이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줄기의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들에는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수많은 혁명투사들이 잠들어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조국의 오늘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혁명투사들을 잊지 못하고계십니다. 우리모두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의 비를 먼저 찾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시다. …

답사대오가 마동희동지의 비앞에 이르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 희생된 마동희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자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대오는 숭엄한 정적속에 심사리 절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대원들을 둘러보시면서 마동희동지는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일제놈들앞에서 자기 허를 찔렀다. 자기 이말로 자기 허를 찔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력사의 사연이 깊이 새겨진 글발들을 읽어내려가는 행군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굳은 맹세를 다지던 60년전 그날의 답사대원들의 모습이 절제 비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길개척의 길에 올랐던 답사대원들처럼 우리 당을 받드는 충정의 일편단심만을 굳게 간직한 청년전위들은 여기 혜산땅에 자기들의 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였다.

답사대원들은 곳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한 학습을 하였으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도와주기 위한 헌신적인 로력지원사업을 하였다.

원아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증등학원에로 뜨거운 지성의 마음을 안고 달려갔고 혜산시가 들썩하도록 항일혁명군중무용보급 및 훈련도 열정적으로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대의 시절 첫 혁명전적지답사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산의 관문도시인 혜산땅에 새기신 력사의 자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기 위해 백두의 행군길에 오른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에 의해 오늘도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답사자들
—보천보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잊지 못할 사연 전하며 기적소리 울린다

우리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자들과 함께 렬차를 타고가는 과정에 그들의 가슴속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소문없이 떠난 첫 답사길

렬차는 동해바다를 끼고 한창 달리고있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읽고있는 답사행군대원차림의 소년단원인 강형준학생을 만났다.

그가 읽는 책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제1중학교시절에 첫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무으시고 평양을 떠나시던 때의 이야기가 수록되여있었다.

달리는 렬차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해 학습하는 나어린 학생을 보느라니 잊지 못할 60년전의 이야기가 되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평양제1중학교답사대오가 출발을 앞두었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답사대원들이 답사기간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나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아버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백두산에서 개척된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 10시 렬차로 평양을 떠나시였다.

력사에 길이 빛날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첫걸음은 이렇게 소문없이, 너무도 조용히 시작되였던것이다.

그날의 사연을 되새기는 우리에게 강형준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평양제1중학교 학생입니다.》

렬차가 택암청년역에 멎었을 때였다.

깊은 밤이였지만 검차원들이 렬차의 제동부위들을 마치로 두드려보며 검사하고있었다.

이때 답사대원들중의 누군가가 여기가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난 곳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60년전의 그 이야기를 우리의 답사대원들이 알고있었다.

내용인즉 이러했다.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렬차가 택암역(당시)에 멎어섰을 때였다.

그때에도 검차원은 마치로 렬차의 제동부위들을 검사하고있었다.

그의 작업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대원들에게 검차원들은 지금 음악가들처럼 《불협화음》을 찾고있다고, 음악가들에게는 《불협화음》이 조금이라도 허용될지 모르지만 저 검차원들에게는 단 한번의 《불협화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이날 답사대원들에게 검차원이 찾는 《불협화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대오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허용되지 않는 《불협화음》

렬차의 음향에서는 단 한순간의 《불협화음》도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기계들의 소리가 하나의 완벽한 《화음》이 되여 울리게 될 때 렬차는 더욱 힘있게 전진한다는 이 리치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모신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순간의 《불협화음》도 없이 세차게 고동쳐야 한다는 깊은 뜻을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날의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가 백두의 행군길에 오른 우리 답사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오늘도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쑨론 싸이냐싹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론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나간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조직의 위력은 당세포들의 전투력이며 구체적으로는 당원들의 역할이다.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비상히 높이는데 있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은 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당적지도를 방법론있게 짜고들 때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강조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은 당원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며 보살펴주는 정치적보호자입니다.》

언제인가 학포탄광에 나가 초급당조직에서 진행하는 당원들과의 사업정형을 료해하던 련합기업소 당위원장 박원일동무는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사상사업을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로 대치하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대고조전투가 벌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전을 강도높이 전개하지 못하고있는데서도 표현되였다. 주원, 강안을 비롯한 산하 탄광당조직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당위원회가 당원들과의 사업은 아래단위 초급당조직들이 하는 일로만 여기면서 별로 낯을 돌리지 않는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고인물에 이끼가 낀다는 말이 있다. 당원들이 선발되고 단련된 사람들이라고 하여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일관성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없다.

당원들의 심장에서부터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지펴올리자, 이것이 당위원회가 틀어쥔 당사업의 종자였다.

우선 사상교양사업을 지역적특성과 전투적분위기에 맞게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온성지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두만강을 건너 두루봉에 오르시여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다. 이로부터 초급당조직들에서 두루봉혁명사적지,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널리 조직하도록 하였다. 답사과정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 읽은책발표모임, 혁명가요경연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당원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빨바람정신이 깊이 새겨지도록 하였다.

사상사업을 총공격전의 요구에 맞게 화선식으로 진행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시간과 장소,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실속있게 벌어지도록 하였다.

실례로 연혁소개실참관을 들수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참관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오랜 탄부들을 준비시켜 그들이 탄광연혁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해설하도록 하였다.

얼마전 학포탄광 3갱의 당원들이 연혁소개실을 참관할 때였다. 오랜 당원인 량도굴동무가 탄광의 발전로정에 새겨진 전세대 당원들의 위훈에 대하여 생동한 자료를 들어가며 해설하였다.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100일전투기간에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석탄생산계획을 철썩 넘쳐 수행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참관을 통하여 당원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당원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사상사업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과정에 당원들의 정신력이 비상히 앙양되였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또한 당세포위원장들과의 사업이다.

언제인가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중봉탄광에 나가 당세포위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 그는 당세포위원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산하 초급당조직들에만 방임하지 말고 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품을 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초급당조직들에서 진행하는 세포위원장의 날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실지 도움이 될수 있는 당사업원리와 방법들을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도록 지도를 심화시켰다. 한편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세포위원장의 날 운영모임에 출연하는것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얼마전에도 련합기업소 당위원장은 학포탄광, 궁심탄광들에 나가 세포위원장의 날 운영모임에 출연하였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학습이 끝난 다음 연단에 나선 그는 이미 준비한 직관물을 펼쳐가며 화선식선전선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집행계획서와 결정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세포위원장의 남운영은 당세포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학습, 당사업원리학습, 경험발표, 보여주기 등 여러가지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한편 당위원회일군들은 산하 단위들에 내려갈 때마다 당세포위원장들을 만나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열가지 품성인 충실성, 혁명성, 원칙성, 책임성, 창발성, 헌신성, 근중성, 인간성, 락천성, 청렴결백성을 지닌 대중의 거울이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최강, 리순암동무를 비롯한 당책임일군들부터 당세포들을 몇개씩 맡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섰다. 품을 들여 만든 사업일지를 보는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안겨주어 그들이 당초급일군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무수준과 역할이 높아지니 당원들에 대한 조직사상생활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위원회는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당원들을 내세워주고 떠밀어주는 사업을 조직화하도록 하였다.

당원들의 활동을 그들의 자각성에만 맡겨서는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학포탄광 3갱의 떼기사갱굴진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굴진을 선행하여야 갱목을 절약하면서도 운반능력을 높여 현행생산은 물론 전망생산준비도 통이 크게 내밀수 있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과업을 당원들에게 맡겨주었다. 이렇게 되여 당원들로 돌격대가 조직되게 되였으며 그들이 석탄생산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를 떨칠수 있게 되였다.

중봉탄광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당세포위원장들이 맡아하도록 하였다. 하루일을 끝낸 당초급일군들이 모두 떨쳐나 기초를 파고 벽체를 쌓으며 불이 번쩍 나게 일판을 벌리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당위원회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준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 우선 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 동시에 혁신의 불길이 타오른것이다. 탄광들에는 굴진, 채탄, 공무, 자재, 기술, 공업시험소, 농목장, 정양소 등 여러 단위들이 있지만 당원들이 없는 단위, 당세포가 없는 단위는 하나도 없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에 전반적단위들이 들끓게 되였다. 전기사정이 어렵고 갱목과 부속품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석탄생산에서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학포탄광 공업시험소의 당원들은 베아링을 절약하면서도 운전조작이 편리하게 권양기를 개조하여 석탄생산에 기여하였고 주원탄광 농목장의 당원들은 점점승기르기와 온실농사에서 성과를 거두어 탄부들을 기쁘게 하였다.

또한 근로단체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당원들의 뒤를 이어 청년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휴철전동무를 비롯한 궁심탄광의 청년들이 돌격대를 뭇고 탄광의 제일 어렵고 힘든 막장을 타고앉아 선군청년전위의 용맹을 떨쳐가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곳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품을 들일 때 하나가 열, 열이 백, 천을 일떠세워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투쟁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돌가공품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충정의 200일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돌가공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200일전투기간 년간계획의 2배가 넘는 돌가공품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신심드높이 철야진군을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건재생산을 전문화, 전문화하며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긴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200일전투 첫날부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오늘과 래일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벅찬 전진에 발걸음을 함께 하며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이대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광산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며 현대적인 자행식대철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일군들과 광부들을 적극 떨어주고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원석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원석 1, 2, 3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바람세찬 광구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원석생산량을 계획의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있다.

연마직장, 가공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주인답게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돌가공품생산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원석운반을 맡은 운전사들은 자동차수리정비를 제때에 하고 교대당 운반회수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원석운반에서 전례없는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덩지큰 건물을 일떠세우고 과학기술보급실과 연혁소개실을 새로 들여앉힌 건설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광산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고 새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을 종업원가족들이 힘껏 도와나서고있다.

특파기자 주참선

밀보리가을을 힘있게 다그친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에서 뜻깊은 올해의 밀보리가을이 시작되였다.

충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을 시작해서부터 매일 혁신을 일으키며 밀보리가을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조직들에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화선식정치사업,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애써 지어놓은 밀보리를 한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일수 있게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경제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뒤그루모내기와 농작물비배관리, 밀보리가을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면서 농업근로자들을 밀보리가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협동벌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봄밀보리가을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삼천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낄 열의밑에 벌써 밀보리가을의 76%를 해제낀 기세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청단군의 농업근로자들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밀보리가을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장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에서 본때를 보이고있다.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이른아침부터 포전으로 달려나가 그날계획을 수행하면서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안악군, 신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밀보리가을을 본때있게 내밀어 13일까지 도적인 봄밀보리가을실적은 27%계선을 넘어섰다.

도의 시, 군들에서는 밀보리가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가을한 밀보리를 제때에 거두어들여 낟알털기를 빠른 시일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론전기재들과 운반수단들을 동원하는 사업과 함께 밀보리를 잘 말리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충정의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갈 열의를 안고 계획한 날까지 밀보리가을을 무조건 끝내기 위해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높이 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신천군 새날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양어를 대대적으로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체로 양어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자강도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

도의 양어부문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양어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도적으로 큰강들과 호수들에 현재 6천여㎡에 달하는 15개의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이 생겨나고 시, 군마다에 1천㎡의 온실식메기양어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양어장들에서는 룡정어, 메기, 초어, 화련어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들과 잉어, 붕어, 쏘가리 등을 기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장자강, 청천강, 압록강, 량림호 등 큰강들과 호수가 많은 도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양어를 발전시켜 바다 먼 산간지대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양어부문 일군들과 양어기술준비소의 설계원들은 강과 호수들의 수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들을 충충이 기르는데 적합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온실식양어장설계를 완성하였다.

도에서는 강계시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시, 군들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강계시의 일군들과 양어사업소의 종업원들은 70일전투기간에 1 500㎡의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장자강에 건설하고 150㎡ 온실식메기양어장도 훌륭히 일떠세웠다.

도에서는 양어부문 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과 기술실무강습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시, 군들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자재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과 온실식메기양어장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희천시에서는 청천강에 900㎡의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초산군과 동신군에서는 발전소언제가 건설되여 생긴 넓은 호수들에 여러개의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만들어놓았다. 량림군과 우시군에서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들을 건설하고 여러종의 물고기들을 기르고있다.

시, 군들에서는 온실식메기양어장들도 훌륭히 건설하였다.

도에서는 강과 호수들에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들과 온실식메기양어장들이 많이 건설된데 맞게 도메기종어장과 동신군에 새로 건설한 메기종어장에서 새끼메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시, 군들의 종어사업소들에서도 수천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생산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들과 온실식메기양어장들에 보내주었다.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어장들에서 물고기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공무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긍정적소행을 적극 일반화하여

기계가공분야에서 다기대운동을 한다고 하면 믿기가 어려울것이다. 지금껏 한사람이 한 기대를 돌리는것이 관례로 되여왔기때문이다.

그 관례를 깨여버린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공무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는 주목되는것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온 사회에 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너도나도 애국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번지는 막장들에서 요구하는 설비부속품량은 훨씬 늘어났다.

증산의 방도를 찾으려고 가공직장에 나간 초급당일군은 교대시간에 이 문제를 완성기대공들의 대중토의에 붙이였다. 가공3작업반의 완성기대공인 원경훈동무가 자기가 맡은 치절후라이스반과 다른 기대를 동시에 돌리겠다고 발기해나섰다. 이어 가공2작업반 완성기대공 문태광동무가 자기도 해보겠노라고 나섰다.

그들의 혁신적발기를 지지해준 초급당일군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의 깊은 뜻을 기대공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심어주었다.

그날부터 원경훈, 문태광동무들의 일손에, 발걸음에 불이 말렸다. 70일전투 두번째 날에 벌써 그들은 종전의 2.5배나 되는 부속품을 훌륭하게 가공해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들의 긍정적소행을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올리고 총화모임과 선전선동수단들을 통하여 적극 소개선전하는 한편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공3작업반 완성기대공 김철현동무가 세번째로 다기대운동대렬에 들어섰다.

가공직장에서 타오른 증산의 불길은 소재직장에도 번져갔다. 소재직장의 기술자들은 가공실적이 올라가는데 맞게 소재를 앞세워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중주과유도로에 의한 용해작업에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주파수조건에 관계없이 하루 용해량을 2배이상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분공장적인 부속품생산실적이 70일전투시작전에 비하여 1.3배이상 높아졌으며 련합기업소는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였다.

200일전투에 들어서면서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세운 초급당위원회는 다기대운동의 앞장에 선 기대공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진행하여 분공장안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200일전투 첫 한주일동안에 심부막장 배수설비부속품생산량이 2배로 뛰여올랐으며 전차부속품생산량도 훨씬 늘어났다.

긍정적소행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여 집단적혁신에로 추동한 초급당위원회의 참신한 사업기풍이 안아온 성과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 된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청강자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비결

조선혁명박물관 부장 최춘희동무

들을 소리가 있는 강연, 실력있는 강사, 이것은 조선혁명박물관 부장이며 직외강연강사인 최춘희동무의 강연에 대한 대중의 평이다.

그의 강연선전에서 특징적인것은 제강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과 결부하여 자기 말로 구수하게 통속적으로 하여 청강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것이다.

그는 강연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라는 관점에서 사전준비에 품을 넣었다.

지난 1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한 강연을 국가종합체육단 선수들앞에서 하게 되였을 때였다.

대중을 감화시키고 발동시킬줄 아는 실력가이고 이미 그에 대한 충분한 리해를 가지고있어 당장이라도 출연할수 있었지만 최춘희동무는 서두르지 않았다.

청강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하나라도 더 깊이있게 새겨주자면 자신의 준비정도가 덜었다고 생각한 그는 밤을 새워가며 대상에 맞는 출연제강을 만든 다음에야 연락에 나섰다.

우리 나라에서 조미핵대결전이 언제부터 첨예화되였으며 천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미국의 《핵만능론》이 어떻게 물거품처럼 되였는가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설득력있게 이야기하는 그의 강연은 대번에 선수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그후에도 그는 강사들과 함께 다때체전짐을 수십건이나 만들어 강연선전에 적극 리용하였다. 실효는 경기성과로 나타났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만 하여도 국가종합체육단의 선수들이 2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빛내였던것이다.

최춘희동무

그는 강연을 연락에서만 하지 않았다. 20여년간을 직외강연강사로, 학습강사로 사업해오는 그는 강사들과 함께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를 비롯한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화선식이동강의를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 탄광에 찾아가 이동강의와 경제선동으로 탄부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 이바지한 이곳 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만 해도 그는 강사들로 편대를 무어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는 물론 강원도, 개성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 나가 이동강의를 하루에도 무려 9차례나 하였다. 그들의 강의를 듣고난 사람들은 온밤 수령님들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고, 편지에는 소박해보이는 강사들이 그렇게 큰 사상적방식을 가지고올줄은 몰랐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최춘희동무는 전투현장에서의 화선식강연선전활동으로 대중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총궐기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학위소유자이며 공훈사적강사인 그는 수십건의 강의안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의 강의경연에서 1등의 영예도 지녔다. 그는 또한 강의함정과 강의지도, 경험교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10여명의 공훈사적강사들이 배출되게 하였다.

오늘 그가 맡아보고있는 부서가 혁명사적부문에서 제일먼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실력있는 본보기집단으로 된 성과속에는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순간순간을 당의 숨결로 살며 일해온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슴배여있다.

강연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이다. 바로 이것이 최춘희동무의 강연이 매번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손영희

군중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좋다

사리원시 길성포고급중학교 교장 김영옥동무

김영옥동무는 많은 제자들을 둔 스승이다. 직외강연강사로서 뚜렷한 자욱을 새긴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먼저 자기 스승에 대한 말을 꺼냈다.

강연선전활동의 표률을 베워준 선배가 왜 없으랴 하는 생각이 한순간 갈마들었다. 그러나 아니였다. 학교의 교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김영옥동무는 누구나 인정하는 정평한 실력가이지만 언제나 강연에 앞서 그 준비에 큰 품을 넣었다.

출연제강에 대한 군중의 의견을 먼저 허심하게 들어보고야 강연에 출연하는것은 지난 30여년간 직외강연강사로 사업하면서 그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철칙이였다.

우선 제강의 내용에 따라 맞춤한 분과교원들을 선택하고 군중합평을 진행하였다.

직급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아래사람들이였지만 그는 리정민, 김춘길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이 주는 조언을 더없이 귀중하게 여기고 출연제강에 보충하군 하였으며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완성해나갔다.

강연을 하러 현지에 나가서도 출연하기에 앞서 군중속에 들어가 어울리면서 전반실태를 먼저 료해하는것을 습성화하였다.

지난해 가을, 시집중강연선전대에 망라된 그가 미곡협동농장에 나가 가을걷이와 관련한 강연을 하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습벽대로 농장원들속에 먼저 들어가 일손을 같이하면서 농사일은 물론 생활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깊이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 미곡땅에 용암처럼 끓이치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대중의 심리에 맞게 출연제강의 구성이 바뀌여지게 되였다. 그는 시작부터 농업근로자들이 잊지 못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과 일촉즉발의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라선땅에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솔위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이 펼치면서 청강자들을 이끌어갔다.

군중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탕연한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끼는 문제의 중요성과 의의, 과업에 대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해준 그는 강연의 마감을 노래 《인정의 세계》를 부르는것으로 여운있게 맺었다.

그리움과 충정의 일념으로 세차게 북받치는 격정을 안고 농업근로자들모두가 노래를 절절히 따라불렀다.

강연의 실효는 배우 컸다.

높람게 뛰여오른 그날의 가을걷이실적이 그대로 실증해주었다.

70일전투기간에도 그는 군중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강연선전활동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능숙한 사업방법으로 시안의 단위들에서 38차에 걸쳐 4만 2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모두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준 강연, 파워를 명중한 강연들로 되게 하였다.

전국적인 강연경연에서 여러차례 순위권에 입선하고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의 영예를 지닌 그는 200일전투가 벌어지는 오늘도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나가면서 강연선전활동의 실효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그의 강연선전활동성과는 확증하고있다.

군중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좋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정수

김영옥동무 (가운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이런 고마운 품에서 우리 녀성들이 삽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서

어서 오라 두팔벌려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정깊게 안겨드는 평양산원과 나란히 또 하나의 녀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얼마전 위대한 어머니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신문지면에 담기 위해 떠났던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집에서 휘재수첩을 펼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목적렌트겐, CT, 유관내시경 등의 첨단의료설비들을 비롯한 40여종의 수많은 의료설비들이 그윽히 갖추어져있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로는 매일과 같이 많은 녀성들이 찾아오고있었다.

하다면 그들이 모두 환자들인가.

그 사연을 우리는 소장 리청원동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알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녀성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전주민검진과 녀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기판이나 기업소들에 나가 진행하는 이동검진을 비롯하여 온 나라 녀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유선검진체계가 세워져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 유선종양연구소에 와서 검진을 받을수 있게 되여있어 보는것처럼 많은 녀성들이 찾아온다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세워진 검진체계에 의하여 개원후 지난 3년동안에만도 50여개 단위의 수만명의 녀성들이 이동검진을 받았으며 많은 녀성들이 전문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실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하는 하나의 사실자료였다.

계속되는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녀성들이 유선질병치료를 받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였다. 그것을 본다면 유선촬영을 하는데 100~150US$, 간단한 수술을 받는데 1 300~4 600US$, 절제수술을 받는데 6 500~12 700US$의 비용이 들며 항암제를 비롯한 약값만 해도 7 200~14 000US$에 달한다는것이였다.

《치료비, 약값이라는 말조차도 모르며 우리 녀성들이 받아안는 당의 크나큰 은정을 어떻게 수자로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이였다. 진정 끝없이 이어지고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무게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잴수 없는 무한한것이였다.

건설중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고 새로 건설되였을 때에도 찾아오시여 보건부문에서 유선암을 조기직발하기 위한 검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건강한 몸으로 만복을 누려갈 우리 녀성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현대적으로 훌륭하게 꾸려진 병원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병치료를 받으며 우리 녀성들은 격정에 겨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고 고마움을 터치고있는것 아니랴.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입원하여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고 완치되여 떠나가는 평범한 로동자의 안해입니다. 정말 이런 희한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보니 우리 나라 녀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녀성들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병에 걸렸더라면 오늘과 같이 다시 소생하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원생활기간에 체험한 이 모든 현실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두메산골에서 왔습니다. …

입원생활기간은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이였습니다. 정법한 농장원인 내가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값비싼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가슴뜨겁게 미쳐와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 이것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리 녀성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가장 열렬한 사랑의 송가이며 복받은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행복의 노래인것이다.

그 목소리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그속에 담겨진 보답의 맹세를 읽으며 병원문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 이런 웨침이 들려오는듯싶었다.

세계여 우리를 부러워하라, 위대한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을 부러워하라.

문수지구에 훌륭하게 일떠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에서 여기에 화답하는 메아리들이 울려오는것만 같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조 향 미

나노약물개발의 밝은 전망을 마련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인 나노기술을 리용하여 종전의 약물에 비해 치료효과가 훨씬 높은 나노약물의 개발을 위한 밝은 전망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효능높은 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의학과학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약물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일정한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한데로부터 림상실천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나노약물은 물에 잘 풀리지 않는 성분들과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 그리고 인체내에 들어가 쉽게 분해되여 지속적인 약리적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약물들의 물리적특성 등을 변화시켜 치료효과를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이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는 나노약물의 개발을 자기 나라 의약품산업의 기둥으로 정하고 기초연구에 힘을 넣는 한편 국제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탄산가스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초림계상태로 만들고 여기에 약리적효과를 가진 물질을 용해시킨 후 급격히 압력을 낮추어 나노크기의 립자를 만드는 초림계류체기술은 현재 나노약물제조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로 인정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초림계류체기술로 나노약물을 제조하는데 리용되는 초림계나노립자제조기에 대한 기술자료들은 발전된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고있다고 한다.

의학과학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나노약물의 개발력사가 비록 짧지만 가까운 앞날에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배짱을 안고 지난 몇해동안 초림계나노립자제조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담한 목표밑에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의학과학원의 책임일군들은 현지에 자주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소장 윤영희동무를 비롯한 약학연구소의 일군들은 다양한 정치사업으로 연구사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의학과학원 처장 김동철, 약학연구소 연구사 김광호,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 연구사 김성철동무들은 수십번의 실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해당 무문 기술자들과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빈터나 다름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초림계나노립자제조기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약학연구소의 기사 조남일, 연구사 장성국동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애써 노력하여 초림계나노립자제조기를 정상가동시킬수 있는 기술적특성들을 찾아냈다.

초림계나노립자제조기의 완성으로 유선암치료에 좋은 락솔의 나노화를 실현할데 대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그리고 많은 약물들을 종전에 비해 치료효과가 훨씬 높으면서도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나노약물로 제조할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원만히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여러건의 앞선 치료방법들을 도입

황해북도인민병원에서

황해북도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뜻깊은 올해에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원만히 마련하여 여러건의 앞선 치료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림상실천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입니다.》

지난 2월말 병원에서는 복강경설비의 하나인 기복기의 파괴된 조종프로그람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병원의 기술자들과 의료집단은 수십일동안 집체적지혜를 합쳐 우리 식의 조종판을 기복기에 들어앉힌데 이어 자체로 개발한 조종프로그람을 넣어 해당 나라 제작회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것이라고 하던 복강경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였다.

병원에서는 이어 수십건의 복강경하 충수절제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복강경하 위천공봉합수술에서 성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장 리덕화동무를 비롯한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의 의료일군들은 최근 앞선 기술에 의거하는 수자식소형카메라에 의한 화상후두진단치료설비를 제작완성하고 림상실천에 받아들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종전의 후두경을 가지고서는 해당 질병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없음을 림상실천과정에 파악한 이들은 소형카메라에 보임광선조명장치를 결합하고 카메라의 보임거리를 줄이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액정텔레비죤에 현시되는 영상의 질을 개선하고 진단의 객관성을 보장하였으며 후두강내 점막의 병적변화를 제때에 정확히 감별할수 있게 하였다.

병원의 의료집단은 고심어린 노력끝에 첨단수술의 하나인 흉강경하 교감신경절제수술로 손이 시리면서도 저린 케이노병과 다한증, 엑취증 등을 치료할수 있는 수술방법을 완성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오랜 세월 케이노병으로 불편을 느껴온 한 환자의 건강을 짧은 시간에 회복시키였다.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병원의 의료집단은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세계적으로 난치성질병으로 알려진 폐쇄성혈전성혈관염의 치료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리성칠, 리성찬동무를 비롯한 황해북도인민병원의 일군들과 의료집단은 지금 당 제7차대회 과업을 높이 받들고 앞선 치료방법들을 림상실천에 더 많이 받아들일 확고한 목표밑에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자랑할만한 의료봉사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병원을 찾아서

주체비료가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한 위재길을 이어가던 우리의 눈앞에 록색바탕에 다른다른 목타일을 곱게 붙인 록색있는 멋쟁이건물이 안겨왔다.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지난해 기업소책임일군들의 발기에 의해 개건된 산업병원이라고 하면서 외형만 보아도 마음이 절로 끌리는 그곳으로 안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입니다.》

병원은 크게 외래병동과 입원병동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우리는 원장 김광호동무와 함께 외래병동의 여러 치료실들을 돌아보았다. 찾아온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의학지식과 상식도 알려주는 갖가지 형태의 알림판들과 위생선전판들, 따뜻하고 친근한감이 안겨오게 시공한 벽체장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훌륭하게 꾸려진 이곳을 찾는 로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았다. 중앙병원 못지 않게 렌트겐, 치과종합치료기, 전자위내시경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들을 진단 및 치료할수 있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그윽하게 갖추어놓은 치료실들도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럴수록 이 자그마한 산업병원에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따뜻한 해빛이 속속들이 비쳐들고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저도모르게 뜨거워졌다.

친혈육의 따뜻한 정으로 빈틈없는 치료대책을 세워가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의료일군들이 가정세대들과 로동현장에 들어가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나이별, 체질적특성에 맞게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에 한복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병원은 2층짜리 건물이였다고 한다. 건물이 협소한데다가 현장에서 올리는 소음은 이따금 입원실에서도 들리였다. 그러나 이것이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기업소책임일군과 함께 병원위치를 다시 확정할 때에야 의료일군들은 로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서는 자그마한 빈틈도 허용될수 없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앞에는 양어장과 정각이 있는 경치좋고 공기좋은 곳에 병원이 옮겨간다면 환자들이 낚시질과 같은 정서생활도 하면서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할수 있었다. 텅지른 건물도 병원건물로 리용하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하지만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이것만으로 만족해하지 않았다. 얼마 안있어 현재 있던 건물을 환자치료에 손색이 없도록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한편 병원건물을 품들여 하나 더 일떠세우고 주변환경을 보다 잘 꾸리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병원이 점차 자기의 체모를 드러내는데 맞게 현대적인 갖가지 의료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척되였다.

이렇게 새로 일떠선 병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과연 무엇이 고패쳤겠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듯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전하며 온 나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치료예방기지들은 그 얼마이던가.

하기에 우리에게는 병원의 모든것이 무심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책임일군들의 착상에 의해 록색있게 꾸려진 의사실과 간호원실, 입원실, 식사칸으로 이루어진 병동자체가 인민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정이 싹 차넘치는 따뜻한 집으로 안겨왔다.

남흥땅에 일떠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그를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이런 일군들이 많기에 우리 당의 사랑의 해빛은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더욱 따사롭게 비쳐들고있다는것을.

본사기자 김 옥 별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고원군인민병원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국제태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할 태권도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국제태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할 태권도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락락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여 만민의 높은 칭송을 받고계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쑨론 싸이나싹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업적과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이밖에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과학기술전당, 룡과인민을원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평성, 사리원, 함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롱구, 배구, 락구를 비롯한 1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13일 평성경기장에서 있었다.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강형봉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성시내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 체육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당대회가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 총매진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가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 체육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실전훈련의 용광로속에서 다져온 사상정신적 및 육체기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감독들은 경기조직과 지도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심판원들은 심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경기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평안남도와 자강도사이의 녀자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주민들모두가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은률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랑정만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그는 맡은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 특히 이웃집에 사는 전쟁로병을 친부모를 모시듯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애기어머니들과 주민들이 생활에서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늘 마음을 쓰며 뛰고있습니다.

지난해 봄에 저도 그의 따뜻한 방조속에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금성인후염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인정많고 인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그를 주민들모두가 존경하고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인민보안원을 키운 어머니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률군 금산포로동자구
도 명 순

국제태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할 태권도대표단 도착

국제태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할 통와이맹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태권도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해주시수예품 및 초물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작고도 큰일을 하는 사람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것은 우리 인민의 피땀이 스며있고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자락자락, 발밑의 골뱅이들이 보래물에 푹 박히기도 하고 발가락짬에 끼우기도 한다. 그래도 좋다. 골뱅이가 많기만 하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더없는 보물이니까 하며 아예 삼으로 골뱅이를 자루에 퍼넣으려면 순간…

《따르릉—》하는 자명종소리에 눈을 떠보니 꿈이였다는 공예작업반장 신선비동무의 이야기에 웃음판이 터졌다. 그 찰나 지배인 조재원동무가 작업장에 들어섰다. 그에게 작업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올해에도 우리 공예작업반원료창고는 풍년이 들겠다고.

이것은 200일전투의 첫날 해주시수예품 및 초물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는것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골뱅이껍질들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도 인기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있는 이들이야말로 구슬을 꿰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원천으로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면서도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흔히 제품생산이라고 하면 많은 전기와 자재리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공장의 경우는 다르다. 공장에서는 제품생산과정에 국가전기를 소비한 일이 크게 없다. 자재 또한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된다.

골뱅이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황해남도의 바다가에는 모양도 곱고 록두알보다도 작은 골뱅이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각이한 골뱅이들이 많다. 해마다 7—8월이면 이들은 바다가에 나가 골뱅이들을 채취한다. 골뱅이는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미색과 회색, 연밤색 등 여러가지 색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낸 골뱅이들의 색갈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조그마한 골뱅이로 만든 장난감들과 꽃병들도 그러하지만 골뱅이로 형상한 그림들은 매우 섬세하고 희한하여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공예작업반 반장 신선비동무만 놓고보아도 그는 지난 수십년간 골뱅이를 가지고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왔다.

그는 처음부터 재간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였다.

그러나 전재고아였던 자기를 품어키워 내세워준 어머니당과 조국을 위해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싶은 보답의 열망은 그에게 이 땅의 골뱅이 하나에도 애국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를 비롯한 공예작업반원들이 만든 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람회들에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골뱅이외에도 황해남도에 흔한 왕골을 가지고 돗자리와 방석, 가방 등을 만들고있는데 그 수요가 매우 높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세상에 우뚝 빛내이려는 소중한 마음은 서해기슭의 흔한 골뱅이도 이렇게 보물로 만들었다. 애국은 바로 이런것이다.

본사기자 홍 성 철

평남탄전에 울려퍼진 감사의 노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60여세대의 새 가정이 한날한시에 태여난 이야기

온 나라 인민들이 새로운 전투전야의 일요일휴식을 즐기던 지난 5월 29일 평남탄전에 경사가 났다.

도안의 여러 탄광지구 청년돌격대들에 망라된 74명 청춘남녀들이 도당위원회와 탄광당조직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행복한 새살림을 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당조직과 동지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결혼상을 차려주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고 굴진하는 수십명 청년돌격대원들의 결혼식이 도당위원회의 최대 중대사로 되고 온 도가 떨쳐나 61쌍의 신혼부부들에게 갖가지 세간을 일식으로 갖춘 새 보금자리를 안겨준것이야말로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당, 군, 청 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조국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문제인 청년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뜻깊은 그날 따스한 보금자리에 인생의 닻을 내린 청년돌격대원들이 목메여 부른 하나의 노래가 있다. 새 가정을 이룬 61세대 집집마다에서 부부2중창으로 시작되여 드넓은 평남탄전의 합창으로 소리높이 울린 시대의 명곡 《세상에 부럼없어라》!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이날에 울린 감사의 노래, 당에 대한 열렬한 찬가는 모든 청년들이 당의 품에 영원한 삶의 주소를 정하고 당과 한피줄을 이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참모습을 전하고있다.

우리 당의 천군만마

뜻깊은 결혼식의 주인공들인 평남탄전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온 나라에 소문을 낸 청년들이다. 그들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광의 새 삶을 받아안았다.

석탄전선의 전초병이 될 열망을 안고 평안남도의 탄광들로 달려와 돌격대원이 된 청년들가운데는 일찌기 부모를 잃었거나 떳떳치 못한 과거를 가진 동무들도 있었다.

지난해 2월 그들은 참으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이들의 과거경력과 탄광으로 탄원한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조직들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 키워주고 잘 보살펴주며 이끌어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내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접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했다는것을 돌격대원들에게 전달해주고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주라고 뜨겁게 당부하신것이였다.

도당위원회의 긴급부름을 받고 모여왔던 청년돌격대원들과 가족들은 은정깊은 그 말씀을 전해듣고 울음바다를 펼치였다. 아직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는, 이제 겨우 보답의 첫 자욱을 뗀데 불과한 그들이 아니였던가.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도처럼 진군하는 혁명대오의 상징과도 같은 천군만마에 비겨 그들모두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온 나라 인민앞에 내세워주시니 감격의 눈물을 동이로 쏟은들 크나큰 감사의 정을 어이 다 토로할수 있었으랴.

김혁청년돌격대, 차광수청년돌격대, 리수복청년돌격대, 길영조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조국청사에 빛나는 항일혁명선렬들과 공화국영웅들의 불멸의 이름을 새긴 청년돌격대기발이 평남탄전에 더 힘차게 나붓기기 시작했다.

막아서는 붕락도, 무섭게 덮쳐드는 감탕판도 두려움없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며 조국부강의 새 탄발을 열어나가는 믿음직한 지하전초병들의 대오는 수천수백명으로 늘어났다.

그럴수록 평안남도당위원회와 탄광당조직들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모두를 우리 당에 크나큰 힘을 주는 무적의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들로 키우는 사업이 첫째가는 중대사로 심화되였다. 도안의 탄광지역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에 친부모의 정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위훈과 소행을 당중앙에 보고드리였다.

그 진정속에 지난해 5월 평남땅에서는 한두명의 대표도 아닌 탄광부문의 수많은 청년돌격대원들을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장으로 떠나보내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청년돌격대원들이 대회장으로 떠나던 날 탄광마을 동구밖까지 따라나오며 멀리 손저어 바래준 당세포위원장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오면 당중앙을 석탄증산으로 받드는 지하막장의 억센 기둥이 될 심장의 맹세를 꼭 말씀드리라고 절절히 당부한 송남청년탄광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탄광당일군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모신 당보지면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보며 기쁨을 금치 못한 도당위원회 일군들 …

그 모습은 정녕 친아버지였던가, 친어머니였던가.

우리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도당위원장이나 탄광초급당위원장, 당세포위원장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당의 따사로운 눈빛과 자애로운 손길, 고향집부모의 사랑까지도 다 합친 뜨거운 정을 느낀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그런 청년들이 당이 부른 총정의 70일전투에 어떤 불같은 모습으로 나섰겠는가.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칠리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 길영조청년돌격대를 비롯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이 일하는 막장 어디서나 만리마시대의 선구자가 되자는 총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직 총정의 70일전투 승리를 위하여!

나이도 경력도 다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과 맺은 하나의 정을 피줄처럼 간직한 수천명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오직 이 하나의 절승선에, 우리 당의 천군만마가 되려는 결사의 의지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는 3월 24일까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는 4월 10일까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는 4월 10일까지, 김혁돌격대는 4월 8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평남탄전의 50여개 돌격대들이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년간 굴진계획과 상반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천성—성산천지연초룡식배수갱공사를 맡은 청년돌격대도 물길굴관통이라는 혁혁한 성과로 총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했다.

이 모든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이였다.

하지만 총정의 70일전투를 통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친 청년돌격대원들의 산악같은 기상, 용암처럼 뜨거운 열정에 비하면 그 기적도 모래알처럼 작은것이였다.

탄광의 막돌과 같이 버려질번했던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으로 이끌어 우리 당의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들로 키우고 내세운것이야말로 평안남도당위원회와 탄광당조직들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이다.

끝나지 않은 전투총화

총정의 70일전투가 끝난 뒤 평안남도당 책임일군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발휘된 도안의 탄광부문 청년돌격대원들의 긍정적인 소행자료가 든 문건을 한장두장 다시 펼쳐보았다.

천성—성산천지연초룡식배수갱의 물길굴관통을 축하하며 나갔을 때 감탕에 발목이 빠지는 갱속에서 흙범벅, 땀범벅차림으로 맞이하던 길영조청년돌격대의 혁신자들의 이름도 보였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되살아났다.

…

《박은성동무는 소대장이지. 지금 몇살이요?》

그의 웅근 목소리에 씩씩한 대답이 따랐다.

《33살입니다.》

장가갔는가고 다시 묻자 당자는 머뭇거렸다. 돌격대장 함영호동무가 대신 나섰다.

《송평화라구 우리 돌격대에 약속한 처녀가 있습니다. 총정의 70일전투를 끝내고나서 결혼하자구 약속했습니다.》

돌격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을 꺼낸 그는 박은성, 송명화라는 이름을 적어넣었다. 또 다섯쌍의 처녀총각돌격대원들의 이름이 그아래에 적혔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보답하자고 총정의 구슬땀을 바친 소행은 길영조청년돌격대만이 아닌 도안의 각 탄광 청년돌격대 대원들속에서도 수없이 발휘되였다. 그 수는 적지 않았다. 더우기 그들가운데는 부모가 없는 청년들도 있고 가족, 친척들이 멀리에 있는 대원들도 있었다.

얼마후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의 모임이 열렸다.

《우리가 총정의 70일전투 총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총화를 놓치고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도당위원장의 말에 집행위원들은 놀랐다. 도에서 총정의 7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방대한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한 기쁨이 가슴뿌듯이 차있는 그들이였던것이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앞에 도당위원장이 내놓은것은 74명 돌격대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였다.

《당장 결혼식을 해야 할 도안의 탄광부문 청년돌격대원들입니다.

집행위원동무들! 그들의 결혼식까지 마저 해주어야 우리 평안남도의 70일전투가 전부 끝났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당위원장의 절절한 호소는 집행위원들의 심금을 쾅쾅 두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정의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격동적인 시기에 찾아가신 곳은 정녕 어디였던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선물로 훌륭히 완공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아니였던가.

청년, 바로 그들이 시대의 주인공이며 그들의 어깨우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실려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위훈에 앞서 청년들의 위훈을 가장 값높이 내세우시는것이였다.

그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칠의 맹세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억세게 들어앉았다.

안금철, 김광빈, 고경진, 리영수동무를 비롯한 도당위원회와 도급기관 일군들, 각 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당일군들이 74명 돌격대원들의 결혼식을 친자식의 일로 여기며 진정을 기울인 이야기를 우리 어찌 다 할수 있으랴.

어제는 집을 잘못 든 청년들을 자기가 맡아 책임지겠다고 여러 기관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던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당책임일군, 남양탄광, 송남청년탄광의 초급당일군들이 오늘은 청년돌격대원들이 한생토록 못 잊을 결혼식준비를 위해 밤잠도 잊고 뛰고뛰었다. 지난날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돌격대원에게 자기 아들의 첫날옷감으로 마련했던 양복천이며 와이샤쯔를 들고왔던 일군이 이번에는 가정에서 준비한 새 텔레비죤을 안고왔다.

61쌍의 결혼식준비가 속속 다그쳐지던 어느날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거기에서 울린 도당위원장의 절절한 목소리!

《동무들, 집이 없을가? 시집장가보내는 부모들이야 신혼부부가 살 집까지 마련해주어야 마음을 놓지 않소? 새 보금자리에 가구와 생활비품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주면 얼마나 좋겠소.》

염집, 소루집도 아니고 60여세대의 집을 마련한다는것이 어찌 쉬운 일이였으랴.

며칠동안에 다섯세대의 집을 와닥닥 일떠세운 탄광도 있고 골조만 섰던 집들을 단 며칠사이에 손색없는 보금자리로 꾸린 탄광도 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집을 짓는 일에 세멘트가 모자라면 세멘트를, 목재가 모자라면 목재를 날라다준 도안의 일군들의 진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장 채충성동무는 자기의 집을 새 가정을 이루는 돌격대원에게 넘겨줄것을 탄광초급당위원회에 제기했다.

《저도 당의 품에서 사람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머니한테 옮겨가면 됩니다.》

그날 저녁 채충성동무의 어머니는 아들네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몇해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아들이 대견하여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었다.

《잘했다. 이왕이면 집세간들까지 좋은것은 다 넘겨주자꾸나.》

그리하여 채충성동무가 살던 집도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다.

평안남도에서 당조직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의 결혼식을 맡아 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생 잊지 않도록 뜻깊게 잘해줄데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새로 꾸린 집집마다에 현대적인 액정텔레비죤이며 록화기, 선풍기를 비롯한 가구 및 생활필수품과 부엌세간은 물론 쌀과 부식물, 조미료까지 갖추어지고 지어는 여러종의 집짐승들과 집짐승우리까지 들어앉는것을 본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속에 물었다. 저기서 과연 누가 살게 되는가고.

그 행복의 보금자리의 주인인 61세대의 새 가정이 태여나던 날 천성청년탄광지구의 9세대 새 집으로 향하며 도당위원장이 기쁨과 보람에 넘쳐 한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내 몸을 예순한개로 쪼갤수만 있다면 뜻깊은 날을 맞는 61쌍의 신혼부부가정에 모두 가보겠는데…》

하지만 어느 돌격대원의 결혼식에나 청년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는 조선로동당을 대표한 우리의 참된 당일군들이 위대한 어머니당의 축복을 안고 빠짐없이 참가하지 않았던가. 청년돌격대원들이 값높은 인생의 닻을 내린 여러 집집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눈부신 태양의 빛발을 뿌리고있지 않았던가.

참으로 복받은 청년들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인공들과 부모형제들은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취재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진정을 터치는 60여세대의 가정을 다 돌아보고싶었지만 그럴수 없었다. 그들 매 사람이 나서자란 경위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한집에 하루밤도 모자라기에 두달이 걸려도 정녕 끝내지 못할 취재길인 까닭이였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똑똑히 새겼다.

로동당시대의 명곡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왜 대대손손 이 땅에 계속 울려퍼지는것인지.

생각깊은 마음으로 남양땅의 한 청년돌격대원의 집마당에 나와서니 눈부신 해빛에 번쩍이는 석탄산과 어둑침침한 버력산이 심각한 대조를 띠고 안겨왔다.

당조직에서 알알이 품어 따뜻이 보살피지 않았던들 탄전의 버력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청년들, 흔히 생활의 거주지는 부모나 본인이 종이로 된 문건에 적지만 영원한 삶의 거주지는 다름아닌 당조직이 그들의 심장속에 새겨주는것이 아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당일군들이 아니였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찌 당의 품에 영원한 삶의 주소를 정하고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노래구절을 대를 이어가며 부를수 있으랴.

눈앞에 어려왔다. 우리의 청년들 한사람한사람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의 위훈의 낮과 밤보다 더 많은 낮들을 지새우는 당일군들, 피끓는 청춘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삶의 거주지는 다름아닌 당의 품이라는 글발을 새기는 그들의 모습이.

청년들의 영원한 삶의 거주지가 당의 품이라는것을 그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조직이 있어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영원한 청년들의 노래, 인민의 노래로 이 땅에 대를 이어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으로 5백만 청년들의 삶의 주소를 책임진 미더운 당조직들이 이 땅의 곳곳마다 피줄기마냥 변함없이 억세게 뻗친 우리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생산자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청진강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미루벌이 자랑하는 참된 주인

곡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자재공급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곡산군에 가면 읍주변의 산중턱에서 생석회를 펑펑 생산하는 석회로를 볼수 있다. 해마다 1만 수천t, 꺼질줄 모르는 불길과 함께 생산되는 소석회가 군의 토지개량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하다면 그 석회로를 건설하고 운영하고있는 주인은 누구들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필지별로양의 조성성분과 땅의 렬력에 기초하여 흙깔이도 하고 소석회같은것도 쳐서 로지를 체계적으로 개량하여야 합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미루벌농사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여기 땅에는 소석회를 많이 쳐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황해북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십년전에 신계지구에 소석회생산기지를 꾸리고 미루벌농사에 널리 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년간 곡산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는 소석회생산기지가 멀리 떨어져있는것으로 하여 소석회를 논밭에 충분히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만큼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지장을 받았다.

이 문제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자재공급소 소장 백성철동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미루벌에서 농사를 잘 짓자면 논밭에 소석회를 많이 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백성철동무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석회로를 일떠세우리라 결심하였다.

많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석회로를 건설하고 운영하자면 헐치 않을것이다. 그러나 당에서 바라는대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풀자면 누구나가 그것을 자기의 생활상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더우기 우리 공급소야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있는것이 아닌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고 종업원들은 소장을 따라나섰다.

급선무는 질좋은 석회석산지를 찾는것이였다. 그는 짬시간을 리용하여 군의 지질상태와 관련한 책들을 보고 산발들을 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이 그를 불렀다. 지도를 펼치고 문양리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옛날 여기에 석회석광산이 있었다는데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한달음에 문양리로 달려갔다. 수십년을 써도 다 못쓸 량의 질좋은 석회석이 매장되여있었다.

질좋은 석회석매장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공급소종업원들이 떨쳐나섰다.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내화벽돌이며 세멘트를 얻기 위해 수십, 수백리 발길을 걸어야 하였다. 힘들게 로를 건설해놓으니 그 운영이 또한 문제였다.

때로 잘 구워져나오는가 하면 돌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연료때문인가 아니면 욕심스럽게 로를 지내 크게 건설한것때문일가.

백성철동무와 종업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책들을 탐독하고 경험을 쌓고 기술을 혁신하며 생석회생산을 늘이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

그러한 이들을 군의 일군들이 그리고 협동농장들에서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미루벌농사를 위해 바쳐온 지난 5년세월, 백성철동무와 종업원들이 생산한 소석회량은 실로 대단하였다.

질좋은 소석회는 농사는 물론 군살림에 널리 리용되였다.

오늘도 백성철동무와 종업원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미루벌농사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조선사회민주당소속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대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천명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대강이며 애국애족의 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그 정당성과 현명성,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방안인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대로만 하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이룩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사회민주당과 전체 당원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과 애국애족의 정풍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호소문을 보내면서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한것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한 매우 의의있는 중대제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앞에서 누구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이며 진실적인 제의에 대하여 무턱대고 부정할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조선사회민주당이 맡고있는 임무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총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보조를 같이하며 애국의 거세찬 불길이 되고 통일의 힘찬 메아리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남조선의 정당들에 보내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 표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일 남조선의 6.15한마음통일산악회(6.15산악회)가 서울 구로구에서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체육대회를 가지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등 단체성원들이 참가하였다.

6.15산악회 회장은 곧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언명하였다.

6.15의 정신을 되새기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해 6월에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체육대회를 진행한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6.15시대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태였다면 남북이 평양이나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과 같은 곳에서 함께 체육대회를 할수 있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운을 잃지 말고 모두가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체육경기들을 통해 단합의 위력에 대해 더욱 깊이 느끼면서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를 가다듬었다.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회견에서 강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는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대표는 6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밝은 전망을 안겨준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온 겨레의 가슴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주며 김정일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 16년전 6월의 그날이 다가오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는 이남민중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헌신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장장 반세기이상 겨레의 가슴속에 쌓이고 맺혔던 분렬의 설음을 6.15통일시대의 봄빛으로 따스히 녹여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숭고한 통일의지와 광폭의 도량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2박3일의 55시간동안에 분렬 55년간에 이루지 못한 거대한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남과 북은 년대를 두고 지속되어온 반목과 불신을 가시고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민족사의 장엄한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계속하여 그는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안겨준 소중한 전취물들이 말살당하고 남북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로 치닫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폭로된것처럼 이남의 집권세력은 민족을 등진 선임자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공화국의 관계개선노력에 대결소동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이남당국은 이제라도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며 남북합의들을 인정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오늘 통일운동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민족이 당하고있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는 온 겨레를 한품에 안은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대성인만이 내릴수 있는 비범한 대결단, 대용단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절세위인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불멸의 통일대강과 좌표가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삼천리강토우에 기어이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분렬의 원한서린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봄빛을 뿌려주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준 6.15통일시대,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북남대결이 첨예화되고 전쟁위험이 짙어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합의 함성 높이며 통일의 열매를 주렁지우던 그 못 잊을 나날들은 한없이 귀중한 추억으로 겨레의 가슴에 파도쳐온다. 그립수록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시대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눈금적시는 우리 겨레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혁명천만리길은 뜨거운 민족애로 심장을 끓이시며 혜치신 애국애족의 길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겨레의 마음 뜻깊은 6월과 더불어 백두산천지에서 한나산 백록담까지 온 삼천리강토에 용암처럼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필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불멸의 애국헌신으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위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어버이, 절세의 애국자, 절출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숭엄한 마음을 안고 더듬어볼 때 사무치게 되새겨지게 되는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불면불휴의 로고, 애국의 헌신으로 통일강국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는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의 그해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눈물겹게 추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풀어워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

이 절박한 민족사적과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멸의 애국장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잠도 휴식도 다 미루시며 너무도 많이 애쓰신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전에는 그 어떤 락도 바라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생활신조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이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의도하시고 바라신대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오직 한길을 따라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 불멸의 리정표가 마련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우리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였다. 당시 내외여론은 6.15공동선언은 선군정치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북의 자주통일로선이 있었기에 조선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할것을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이 나오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이 구현된 새 세기 민족의 자주선언, 평화통일선언이며 위대한 단합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되던 나날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비범한 예지와 통이 큰 결단, 호방한 성격과 유쾌한 유모아로 좌중의 심금을 틀어잡으시며 환희와 충격의 열풍을 일으키신 우리 장군님, 불과 55시간동안에 민족분렬 55년동안 이룰수 없었던 통일의 리정표를 높이 세워주신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온 겨레가 환호를 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북남관계를 화합과 통일의 궤도에 올려세우고 전반적통일운동을 급격히 앙양시키였다. 기나긴 세월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북남관계가 근본적발전의 길에 들어선것은 온 겨레의 가슴가슴을 조국통일은 머지않아 이룩되고 통일된 조선은 세계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르리라는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6.15통일시대의 거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정양에서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10.4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로 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하늘같은 덕망은 민족대단합의 새 전기를 펼쳐놓았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앞을 다투어 평양으로 찾아오는 남녘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을 친히 만나 애국애족의 넋을 심어주시며 민족대단결의 대오에 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온 겨레의 가슴속에 운명을 맡기고 영원토록 따를 태양의 모습으로 길이 새겨졌다.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풍모를 지녀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며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 만고절세의 애국자로 천세만세 영생하신다.

격동의 6.15통일시대를 체험하면서 우리 겨레가 심장으로 새긴 진리가 있다. 그것은 절세의 위인에 의하여 위대한 력사가 창조되며 민족의 운명은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이다. 또 북남선언들이 가리킨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민족이 흥하고 통일이 오며 이 궤도에서 탈선할 때 불행과 참화가 닥쳐오고 통일의 길은 멀어진다는 바로 그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가 깃들어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해내외의 온 민족은 격한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 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선군정치가 열어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따라 힘차게 두정해나가고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아가자. 6.15의 리정표를 따르는 길밖에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 선군으로 열어놓은 6.15시대를 선군으로 지키고 전진시켜나가자.

이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온 겨레의 지향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6.15를 받드는 겨레의 마음은 하나이고 발걸음도 하나이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6.15기치보다 더 좋은 표대는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선군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어 민족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오늘 력사의 엄혹한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비약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달음쳐오르고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이 꿋꿋이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에 조국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있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부강번영에로 이끄실분은 김정은령도자님뿐이다.》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숭고한 덕망, 탁월한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조국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허 영 민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총련일군들 격정 토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총련일군들이 격정을 토로하였다.

부영욱 총련 오사까부본부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한 잊지 못할 나날들에 대해 돌이켜보면서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의 도착과 대회참가, 숙식조건보장, 방문일정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실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축하문을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랑독하고 축기를 정중히 증정하는 최상의대의 영광을 받아안은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기를 정중히 올리는 저와 축하단 부단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우리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맹세의 말씀을 올리였을 때에는 또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흔들어주시면서 총련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주시였다.

남다른 특전과 특혜를 받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친어버이사랑과 숭고한 동포애, 민족애를 가슴가득 느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대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오늘의 난국을 뚫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제낄수 있다는 신심이 솟구쳐오른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5대과업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감으로써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이다.

서춘원 총련 아이찌현본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구절구절에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100% 계승하고 더욱 빛내여 조국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새겨안았다.

또한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조국인민들의 모습,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국의 참모습을 보고 우리 나라가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으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조선중앙통신】

유인랍치범죄를 용서치 않을것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 인원들에 대한 괴뢰정보원깡패들의 유인랍치만행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강제억류된 우리 인원들과의 면회를 정보원에 요구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 각계의 요구는 해외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보원깡패들의 유인랍치행위가 날로 악랄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한것으로서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남조선 각계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였다. 이자들은 지난 5월에도 장제억류되여있는 우리 인원들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와 면담요구를 묵살해치웠다. 정보원깡패들의 이런 망동이 저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죄악의 진상을 은폐하고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보려는 비렬한 술책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저들의 유인랍치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그 진상을 밝힐 대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는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백주에 우리 인원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집단유인랍치만행은 사상 류례없는 테로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극악무도한 정치적도발이였다. 사건발생 즉시 우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준엄히 단죄하면서 랍치한 우리 인원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고 범죄에 가담한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괴뢰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허튼 나발만 불어대면서 우리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였다.

문건대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면 어째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인원들과 면담하려는 각계의 요구를 거부하고있는가. 도적이 밝은 세상을 싫어하고 죄많은자일수록 속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법이다. 괴뢰패당이 우리 인원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키면서 면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그자체가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는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괴뢰패당이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허튼 나발로 저들의 엄청난 죄악을 가리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우리에게는 괴뢰정보원깡패들이 우리 인원들을 강제로 유인랍치하기 위해 어떻게 사전작전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가득하다. 남조선당국은 죄는 감출수록 커진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괴뢰당국이 강제랍치한 우리 인원들을 정보원산하의 《북리탈주민보호센터》라는 곳에 억류해놓고 온갖 회유기만과 협박, 공갈을 들이대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보원패거리들이 우리 인원들을 상대로 모략극을 꾸미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자들의 망동은 그 무슨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을 광고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책동인 동시에 《북풍》조작으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국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남조선당국이 통일의 길에 우리와 동반자로 나설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보다싶이 괴뢰패당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반공화국대결, 범죄적인 모략책동의 강화로 대답해나서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보수패당에게는 우리와 손잡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꼬물만큼도 없으며 이자들의 속통에는 오로지 극악한 대결야망만이 꽉 들어차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 격화되고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괴뢰정보원깡패들의 유인랍치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이 계속 본벌을 잃고 행동한다면 대결광신자들을 궁지에 더 깊이 몰아넣고 더 빨리 자멸하게 만드는 초강경적인 공세로 대응할것이라는 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조선괴뢰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사코 도발소동에 매달린다면 죄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것이다.

은 정 철

‖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

애국의 명맥을 이어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은 동포대중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각계층 동포들을 더 많이 묶어세움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그리운 조국소식과 동포들의 희로애락이 글줄마다, 사진마다 어려있는 총련 《조선신보》는 동포들의 마음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매일매일 신문을 펼쳐보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자랑과 희망이 가득 넘친다.

지난해 11월 오사까에서 진행된 제48차 재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에는 총련 《조선신보》의 창간 70돐을 주제로 한 《우리 자랑 〈조선신보〉》가 올랐다. 작품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며 《조선신보》를 배포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국소식, 동포소식, 학교소식이 살아숨쉬는 《조선신보》, 70년세월 날마다 동포들에게 행복과 희망, 신심을 북돋아주는 신문을 배포하는 학생들의 영예와 긍지가 작품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이역의 풍파가 아무리 사나와도,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동포들의 밝은 웃음, 동포사회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나어린 학생들은 《조선신보》를 품에 안고 집집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린다. 총련 효고조선가무단 단장이 지은 《우리 자랑 〈조선신보〉》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부르며.

…

아 《조선신보》에 너는 우리 자랑
우리 마음 이어가며 동포들속에 가닿아라
…

작품은 《조선신보》의 명맥이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라난 총련의 미더운 새 세대들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어 동포들의 가슴을 후더울게 하였다.

만발하는 민족교육의 화원

지난해 10월말 조청결성 60돐, 청상회결성 20돐을 맞으며 재일본조선소년단 알아맞추기경연대회가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에서 제시된 문제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문화와 풍습과 관련된것들이였다. 학교별예선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소년단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두가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면서 조국과 민족, 동포사회에 이바지할 역군으로 준비해가는 우수한 학생들이였다.

경연에서는 총련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조현우학생과 와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 김성태학생이 초급부와 중급부부문에서 단연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결승경연 진과정은 총련영화제작소 촬영가들에 의해 인터네트로 실시간 방영되였다. 동포들은 알아맞추기경연대회를 통하여 자녀들을 참된 인간으로 키워주는 우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를 더 힘껏 지원할것을 결의다지였다. 동시에 총련의 교육자들은 우리의 민족교육에서는 순수 지식을 배워주는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키워주는것이 선차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다짐하였다. 모두의 가슴가슴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해외코로민족교육의 화원을 자랑스럽게 꽃피워온 영예와 긍지, 그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애국열의로 세차게 부풀어올랐다.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고있다. 여기에서는 시즈오까현의 동포들이 앞장서고있다. 이 지역 청상회는 총련 시즈오까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벌리고있으며 조청원들도 이에 뒤질세라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학부형들은 또 그들대로 어머가지 상업활동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해마다 학교에 어머가지 교구비품들을 기증하고있다. 민족교육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려는 동포들의 지성은 참으로 뜨겁다.

이런 가운데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동포사회를 더욱 흥성거리게 하였다.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쥬고꾸지역청년음악축전 목관악기부문에서 우리 동포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시상대에 올랐던것이다. 쥬고꾸지방의 중, 고등학교학생들이 참가한 이 경연에서는 총련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황순실학생과 최화영학생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쟁취하였다. 이 학생들은 그후 진행된 전일본중고등학교관악기 및 타악기독주경연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준비회의 진행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1차 국제준비회의가 5일과 6일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와 꾸바, 월남, 수리아를 비롯하여 32개 나라의 40여개 청년학생조직대표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의 반제, 반전, 평화옹호투쟁의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모든 축전활동을 반제적리념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과정에 축전장소와 시기, 축전마크, 구호, 민족준비위원회조직과 관련한 규정, 축전의 기본일정 등이 합의되였다.

회의끝에 세계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랑독되였으며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주최국인 에꽈도르의 청년조직대표들이 로씨야련방민족준비위원회 성원들에게 축전기발을 넘겨주었다.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2017년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로씨야의 쏘치에서 진행되게 된다.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총격사건, 100여명의 사상자 발생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있는 야간유흥장에서 12일 류혈적인 총격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 한 무장괴한이 자동소총과 권총을 가지고 유흥장에 뛰어들어 닥치는대로 사격을 가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았다.

범죄자와 경찰들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50명이 죽고 5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유흥장과 그 주변이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현지의 한 외과의사는 많은 부상자들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번 대규모총격사건을 테로행위로 비난하였다.

한편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는 《올랜도의 동성련애자들을 위한 야간유흥장에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공격은 〈이슬람교국가〉의 한 전투원이 단행한 소행이다.》고 밝혔다.

미련방수사국 대변인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미국력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으로 묘사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언제까지 현실을 도피하겠는가

최근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홈페지에는 미국정객들이 세계를 일주하며 다른 나라들에 혼시하려들지만 해당 나라 정부들은 여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으며 미국의 리익이 아니라 자국의 리익에 맞게 처신하고있다는 글이 실렸다. 그러면서 력대 미행정부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미국식 가치판을 주입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대외정책실행에서 스스로의 무기력을 드러내보일것이 아니라 겸손성과 신중성을 배워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변천된 오늘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채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포로되여 강권정책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 자멸의 길로 내달리고있는 미행정부에 대한 응당한 지탄이며 일종의 경종이다.

저들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는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궁극적목적이다. 세계를 정정함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것이 다름아닌 군사적힘이다.

해외에 흩고앉은 미군사기지는 근 800개에 달한다. 지구를 둘러싼 방대한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해마다 1 560억US$를 쏟아붓고있다.

미국학자 카트린 탓츠는 《망치가 유일한 대외정치적도구로 될 때에는 주위의 전체가 못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하였다. 미국이 뭐하면 내들고있는 《민주주의보장》과 《인도주의시대》, 《만테로》, 《인권보호》, 《핵전파방지》와 같은 요란한 간판들은 저들의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을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반미적인 나라들은 물론 저들과 가깝다고 하는 나라 수반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감행된 불법무법의 정탐행위는 패권야망에 환장한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다스려야 할 《못》으로 간주하고있음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거치장스럽다고 생각되면 유엔도 무시하였다.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헬름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이 미국의 의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여 《미국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며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우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까지 궤변다.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그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국제기구든지 미국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미국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국제기구들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것이 미국의 사고관점이며 립장이다.

국도로 오만한 특권의식이 뼈속까지 배인 미지배층은 국제적정의와 주권평등을 부정하고 저들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을 날치기로 채택하였으며 저들의 침략과 간섭행위를 《정의》를 위한것이라고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마련이다.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피난민사태와 세계를 휩쓸고있는 테로악몽 등은 미국의 강권행사가 세계를 어떤 란무장으로 만들어놓았으며 도처에 부단히 이식해놓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며 인간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망쳐놓는가를 똑똑히 고발해주고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미행정부에 차례지는것은 민심의 랭대이며 거세여지는것은 반미열풍뿐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절반이상이 자국이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10년간 내정간섭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는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화되였다는것이 응답자들의 견해였다.

현실적으로 한때 초대국이라고 우쭐렁거리며 작은 나라, 큰 나라들을 하찮은 존재로 깔보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것처럼 날뛰던 미국이 이제는 눈치놀음을 하고있다.

미국시대의 종말은 더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로 되였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반미자주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는 오늘날 미국은 잃고있는 패권적지위를 절대로 되찾을수 없다.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보다도 변화되는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정책조정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나는법이다. 힘의 정책은 원래 동서간의 랭전과 관련된것으로서 랭전의 종식과 함께 그것은 사실상 파산을 고하였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이 힘의 정책에 매달리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다. 힘의 정책을 버리고 정책전환을 하는 여기에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는 길도 있다.

미국이 정책전환을 하는데서 무엇보다 급선무로 되는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는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결별하는것은 결코 그 누구를 위한 선사품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한 정책연구소 상급연구원인 도우그 반도우는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교립정책은 실패하였다, 핵무기고를 늘이고있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대응책은 핵포기를 요구하는것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게 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핵보유가 더는 협상문제가 아니라는것이 광범한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아직까지도 현실을 도피하며 몽매한 의식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전략적인내》니 뭐니 하는 넘불을 외우고있는 오바마행정부가 가련하기 그지없다.

조선반도주변에 전쟁기계들을 미친듯이 끌어들이고 세계곳곳을 분주스럽게 돌아치며 우리에 대한 법의벌 랑설과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있는 미국의 망동은 자기가 약자라는것을 제스스로 날날이 드러낼뿐이다. 대양건너 아메리카합중국의 망상가들이 헛된 꿈에서 오래동안 깨여나지 못할수록 그만큼 침략의 야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낼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과 무자비한 타격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것이다. 미정객들은 지리멸렬의 치욕을 맛보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리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한시바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만이 미국이 생존할수 있는 길이다.

백 금 희

ㄱ-6109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